



가천대학교

하와이캠퍼스

AI학과 / 배터리학과

창업대학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가지정 지역암센터평가 종합 1위

최상의 심뇌혈관센터

세계 뇌과학 연구 선도(11.74T MRI 개발)

꿈의 중성자 암치료기(임상시작)



국내 최초 길병원 닥터헬기



교육분야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강화캠퍼스,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신명여자고등학교, 가천인력개발원 **의료분야**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연구분야**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BRC(Bio Research Complex), 가천브레인밸리 **사회·문화분야**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가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 **봉사분야**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가천누리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3 Vol. 151

가을

茶文化



차를 사랑한 시인 염헌 임상원



사진제공 : 이림 전북지부장

염헌 임상원(任相元·1638~1697)은 차인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차시는 무려 70수에 달할 정도로 차시를 많이 남겼다. 그만큼 일상에서 매일 차를 마시며, 차를 사랑했던 문인이었다. 그의 시 소재는 일상에서 찾았다. 시 제목에도 와영(臥詠·누워 노래하다), 우음(偶吟·우연히 노래하다) 등 그가 일상에서도 과격과 일탈을 드러낸 시들이다. 그의 차시는 간단하면서도 서정적이다. 그의 시 만좌한벽(晩坐寒碧 오후에 한벽루에 앉아)의 시를 살펴보자.

땅은 한갓저 살아 볼수록 고요하고 / 관아는 청렴하며 품게 또한 높다네.
산은 네 고을의 돌을 돌렸고 / 강은 오대산의 근원을 뿜노라.
화전 불은 먼 산에 타고르고 / 고기잡이 등불은 먼 어촌에 깜빡이네.
차를 달이매 맛 더욱 훌륭하니 / 기쁘도다, 세상 근심을 씻었노라.

염헌집 권 4권에 나와 있는 시로 임상원이 청풍부사로 재직하던 1676년 무렵에 쓴 시로 추정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왜 없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심정으로 차 한 잔으로 세상의 근심을 씻었다고 말을 한다. 역설적으로 차 한 잔의 위로가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시이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일본과 청나라의 교류는 빈번해지고, 중국과 일본의 차 생활에 대한 지식이 넓어진다. 시대는 바야흐로 실학의 시대를 맞는다. 실학의 중심 시대에 임상원은 차를 마시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나를 되돌아보라고 조언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다른 시 '저물녘에 차를 달이다'에서 땅거미 새로 내리니 더위가 반쯤 가시고/ 한가롭게 차를 달이니 술바람 소리 들리네/에서 보듯이 그의 삶은 언제나 한가롭고 번잡하지 않다. 시류를 따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중심을 잡고 시류를 희롱하면서 삶을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

[표지 이야기]
가을은 완성된 계절이다. 활동하기 적당한 날씨와 함께 차(茶)를 나눌 수 있는 풍요의 계절이다. 차인들에게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자 성장의 계절이다. 한국 차문화의 이집터 가고 있는 한국차문화협회의 가을은 그렇게 익어가고 있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3 Vol. 151 가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차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갑시다
- 006 특집 1 제61회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 특강 1, 2, 3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 지부별 기념촬영
- 030 특집 2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2급, 3급 심의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42 선조의 품격 |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
- 046 건강한 삶 | 감염병 예방과 대처방법
- 049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66 규방다례 소식 | 2023년도 인천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진행
여름방학 체험교실 / 인천도호부관아 달빛음악회 찾자리
- 068 협회 소식 | 교육위원회 개최 /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 외 회원 협회 방문

茶情茶感 • 찾임이 맺어준 인연

- 075 지부사랑방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순천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 100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105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우수료 명단
- 106 바로잡습니다
- 108 공고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차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갑시다

회원이 빠져 나간 빈 찻잔에 희망의 잔을 채웁시다
이제는 빈 찻잔을 채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자연의 신비로움이야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장맛비와 태양 빛이 내리쬐더니 요즘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강수량이 많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되고 과일 천국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지난 8월에는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계연수회를 훌륭히 마쳤습니다. 특히 일본 교토지부에서 많이 참석해 주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협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차문화 단체가 된 것은 협동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차인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각 지부는 신규 회원 모집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회원이 빠져 나간 빈 찻잔에 희망의 잔을 채웁시다. 이제는 빈 찻잔을 채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문화 발전에 활용해야겠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창의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차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부의 발전이 협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끊임없이 관계의 중요성을 ‘리좀(Rhizome) 철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각 지부와 지부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고, 지부와 협회 간, 회원과 회원 간,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차문화는 더욱 유연한 조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결 과제도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각 지부와 회원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잘 된다고 하여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성장할 때 더욱 튼실하고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려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뭉쳐 차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갑시다.

가을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인들의 삶도 나날이 영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가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제61회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성공적으로 개최

국내·외 차인 400여 명
'차문화 발전' 다짐

국내외 차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차문화협회 제61회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강정자, 강순란, 이림,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단과 각 지부별 지부장, 규방다례 이수자 등 전국 27개 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라비둘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간소하게 열렸던 아쉬움을 말끔이 씻어내는 행사였다. 3년 동안 팬데믹으로 협회와 각 지부는 회원 모집에서부터 교육까지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4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무형문화재 제11호 지정단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주세요

전국 27개 지부 회원들은 아침 일찍 버스를 이용하여 경기도 화성의 라비돌 리조트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일본 교토지부는 하루 전에 입국하였고, 전남이나 전북 등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새벽에 출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회원 대부분이 오전 11시 이전에 도착하여 12시부터 접수와 숙소 입실을 시작했다.

서울제2지부 안내, 인천지부 접수, 서울제1지부와 수원지부의 찾자리는 연수회 전날 마무리를 마쳤다. 오후 1시 최소연 이사장의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화려한 연수회 막이 올랐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문화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그 나라의 DNA가 축적된 문화의 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지정단체로서 규방다례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는 “문화적 전달은 유전적 전달과 유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도 유전자와 같이 진화를 거듭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면면히 이어진



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회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차문화 발전을 위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한다면 우리의 차문화가 큰 바다를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하나가 되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1박 2일 동안 적극적인 교류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자”라고 말했다.

특강 1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첫날 특강으로 가천대 길병원 문담 교수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란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문담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사례별 대처 방법을 소개하여 회원들의 큰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담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회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떨어지지만, 한국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심정지가 왔을 경우 얼마나 빠른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로는 반응 확인,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 확인, 가슴압박(가능하다면 인공호흡 병행)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가슴압박의 깊이를 5~6cm로 1초에 2회 정도의 압박 속도를 유지해야 생존확률이 높



다고 했다. 생활 속 응급 상황에서는 이물질이 기도폐쇄 시 요령으로 상태 확인,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치기(5회) 순으로 반복해야 한다. 또한 1도 화상 시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2도와 3도 시에는 병원에 꼭 가야 한다.

이 밖에도 일사병, 저체온증, 벌레나 동물에 의한 손상이 생겼을 때 상황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소중한 추억 만드시고, 차문화 발전에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뇌졸중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평생, 혹은 오랫동안 식물인간, 반신불수,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뇌졸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사, 운동, 담배 등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조절, 식사, 운동, 적절한 투약으로 뇌졸중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임원진 단체사진



한다. 노인의 경우 평소보다 행동이 이상하거나 마비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했다. 특강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는 수원지부와 서울제1지부가 마련한 찻자리에서 회원들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 한 다담을 나눴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은 친동기 간을 만난 듯 열싸안고 함께 기쁨은 나눴다. 이날 서울제1지부의 연잎차와 가루차는 회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부회장단 및 각 지부 지부장과의 다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무탈 없이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아침부터 먼 길 오느라 고생도 많았고, 각 지부를 이끌어 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이렇게 협회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차문화 발전에 노력해 주십시오.”라며 말했다.

특강 2 서양 전통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두 번째 특강은 서울대 김현 교수의 '서양 전통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이어졌다. 1시간 30분동안 이어진 특강에서 회원들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타난 정의, 지혜, 용기, 절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라파엘로(Raffaello, 1483-1520)는 남쪽 벽에 법학을 주제로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1511년에 마지막으로 작업한 이 작품은 밑변이 약 670cm인 프레스코 벽화이다. 이 방의 네 벽에는 철학, 신학, 시학(예술), 법학을 주제로 선택했는데, 라파엘로는 주어진 건축물의 물리적인 상황과 자신의 회화적 상상력을 조화롭게 소화했다. 김현 교수는 라파엘로의 벽화 정의, 지혜, 용기, 절제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쿠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



익을 대변한다.'라고 강조하고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변한다.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수호자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생산자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선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네 가지 덕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제대로'로 충실한 행동을 한다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된다고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쿠스의 말을 반박한다.

소크라테스는 4가지 덕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김현 교수는 신화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스의 신화는 어떤 면에서 잔인하다. 그래서 그런지 소크라테스는 어린이들에게 신화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신화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김헌 교수는 신들의 이야기에서 가이아에서 우라노스,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로 이어지는 천부 살해의 신화를 통해서 지혜와 용기의 중요성을 말한다. 다양한 권력에의 도전을 통해서 마지막 권좌에 오른 제우스는 형제와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 절제를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등용한 제우스의 혁신으로 정의가 완성된다.

제우스가 보여준 정의, 지혜, 용기, 절제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김헌 교수는 역설했다.

특강 2를 마치고 저녁에는 3층 회의실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최소연 이사장은 "참으로 오랜만에 만납니다. 오늘은 그동안 모든 것을 잊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꽃을 피워봅시다. 코로나 팬데믹



2023.08.19



2023.08.19



2023.08.19



2023.08.19

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웃어봅시다. 여러분 건강하세요.'라며 친교의 시간을 선언했다. 그동안 못 본 회원들은 3년 치 이야기를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문사범과 지도사범 등 선배들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또한 지부 발전에 대한 의견 등 모처럼 활기찬 의견 교환의 시간이 되었다. 친목의 시간에서는 각 지부장과 협회 임원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특강 3 최치원의 풍류 사상

연수회 2일 차에는 한석태 교수의 '최치원의 풍류 사상'이란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한석태 교수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일컫는다. 그 가르침의 기원은 선사에서 자세히 실려 있는데, 실로 이는 유교, 불교, 선교를 포함해 중생을 교화한다. 최치원은 화랑도의 근본정신을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에서 나온 이른바 풍류도로 교정 풍류, 풍월, 풍수라고 하였다."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경남 하동의 쌍계사에는 풍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쌍계사에는

봄에는 냇물에 꽃잎이 떠서 흘러가고
여름에는 소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우고
가을에는 골짜기서 달빛이 부서지
겨울에는 산마루에 흰 눈이 뒤 덮인다





이처럼 사철에 따라 모습을 뒤바꾸고 만상이 빛을 교차하는 가운데, 100가지 피리 소리가 조화롭게 연주되고 1천 개의 바윗돌이 뿔어난 자태를 경쟁한다. 그래서 일찍이 중국에서 노닐었던 자들도 여기 와서 모두 놀란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공의 동림을 바다 밖으로 옮겨 왔구나, 연화세계 범인의 상상으로 추측해서 될 일이 아니겠지만, 호리병 속에 별도로 천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믿을 만하다.”라고 하였다. 대나무 홈통을 시렁처럼 이어 물을 끌어와서 섬돌 주위 사방으로 물을 대고는 비로소 옥천이라는 이름으로 사원의 현관으로 삼았다. <후한서권 82 하 발술열전 비장방>에 실린 것으로 진시황의 부하들이 불로초를 구하러 경남 하동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특강 3을 마무리하고 연수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회원들에게 자격증 수여식이 있었다. 자격증 수료식에는 최소연 이사장과 박광옥 전승교육사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심의위원으로 수여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에 앞서 지난 7월에 발표된 규방다례 이

수자 하식 이사(경남지부)와 류소영 이사(서울제2지부)에 대한 이수증 수여식이 있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에는 김희영(인천지부) 전문사범의 자격 취득자 전체 선서식을 했다. 이어서 준사범(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3급)을 비롯하여 지도사범 개근상, 화목상,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전문사범 개근상, 화목상, 공로상,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1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1급,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규방다례 전승교육생증이 수여되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최소연 이사장은 “준사범, 지도사범, 전문사범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하계연수회를 통해 우리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여러 지부장 이하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협회의 홈페이지는 우리의 소통 통로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좋은 의견을



남겨주는 것도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회원도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네이버를 통한 검색에 우리 협회가 상위에 오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방문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연수회가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또한 다음 모임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하계 연수회를 모두 마쳤다. ㉠

하계연수가 있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고운 빛깔 한복 차려입고 새벽길 나설 때 설렘은
밤잠을 설치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좋습니다.
그믐 밤 같은 검은 머리카락이 희뿌옇게 색 바랜 지금도
함께 가자고 어서 오라고 하는 도반이 있어 좋습니다.
정성으로 우린 차 향으로 마시고
다식 하나 오물오물 예쁜 입술로 쏘옥 감추고
채우고 비우고 또 나누며, 미소가 머무는 찻자리가 있어 좋습니다.
만남이 막혀도 그리움으로 차 짙을 띄우고
거듭되는 결실은 차문화의 근원이라 여기며
한달음에 모여 두 손 꼭 잡고, 안아주는 다정다감 참으로 좋습니다.
모여 있을 때 용기가 솟아오르고 함께하여 신나는 만남
삶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협회가(協會歌) 목청껏 불러보는
그 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차문화의 영원한 주인공 여러분과 함께하여 더 좋습니다.



협회 부회장 강정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선서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준사범, 지도사범, 전문사범 시상식

김희영 전문사범(인천지부)이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증을 받는 회원들을 대표하여 최소연 이사장 앞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선서>를 했다. 자격증 수여자는 아래와 같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선서식



선서식



준사범



전문사범 공로상



지도사범



전문사범 화목상



지도사범 화목상



전문사범 개근상



지도사범 개근상



“전문사범으로 활동할 대학원 21기 졸업생들은 앞으로 협회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된다. 전문사범으로 출발하는 회원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한다.”

지부별 기념촬영

- ◆ 날짜 : 2023년 8월 19일~ 20일
- ◆ 장소 : 라비돌리조트 신텍스C홀



2023.08.19

임원사진



2023.08.19

지부장 단체사진



2023.08.19

규방다례 이수자증 수여



2023.08.19

전북지부



경남지부



광주지부



경상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인천지부



강원지부



서울제1지부



순천지부



부산지부



서울제2지부



전남지부



수원지부



아산지부



충북지부

2023년 7월 자격검정 실기 심의

수업동안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규방다례
심의위원 앞에서 선보이다



2023.07.15

7월 15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심의



2023.07.15



2023.07.15



장마철이 되자 전국이 홍수로 몸살을 앓았다.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했다. 협회에서는 전국 각 지부에 홍수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앞섰다. 또한 계획된 실기 심의 일정이 있어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수로 인해 KTX가 차질을 빚고, 전국의 고속도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심의를 늦춰야 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비가 소강상태가 되어 일정대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생활다례(규방다례)실기 심의를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협회 교육장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실기 심의를 했다. 최소연(무형문화재 제11호 2대 보유자)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박광옥 전승교육사, 차영민 부회장, 강순란 부회장, 이림 부회장 등 심의 위원과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인천지부 조영아 지부장, 서울제1지부와 서울제2지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심의를 했다. 2급에는 김세정, 김정아, 신소현, 이봉련, 장미애, 박현희, 김선애, 김임순, 안선희, 황동순, 조운수 회원이 심의를 받았다. 3급은 신지안, 강인숙, 이명숙, 정주희, 이미영,

이영서, 정귀남, 정숙이, 정영란, 김은정, 이임순, 박호수, 박별님 회원이 심의를 받았다. 각 지부에서 지부장의 지도로 실기 심의를 준비한 회원들은 심의 시간이 되자 떨린다는 회원들이 많았다. 그동안 배운 것도 막상 심의가 시작되자 잊은 듯한 회원도 있었지만, 심사 위원들은 긴장감을 떨치도록 “긴장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세요.”라며 회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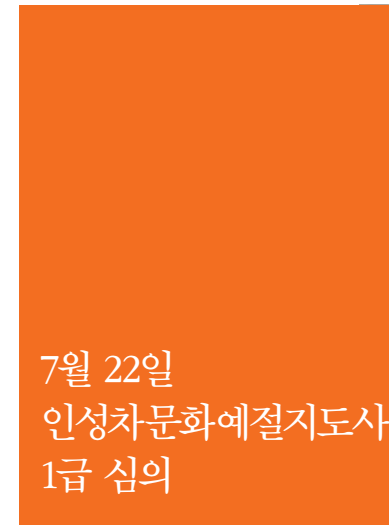
생활다례 심의는 차영민 부회장, 강순란 부회장, 이림 부회장이 심의를 맡았고, 규방다례는 최소연 심의위원장과 박광옥 전승교육사가 심의했다. 오전 10시 30분 정각에 시행된 심의는 2급 11명(1급 1명 구영희)과 3급 13명 등 총 24명이 자격심의를 받았다. 특히 사항으로는 1급 회원(구영희 대구경북제1지부) 1명이 2급 자와 함께 심의를 본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5일에 참석할 수 없어 협회의 배려로 함께 보게 되었다.



2023.07.15



2023.07.15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마철 각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우선 걱정입니다. 또한 이런 빗속을 뚫고 실기 심의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행다례는 금방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다례는 오랜 연습을 통해 몸에 배야 진정한 차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 지부장 및 이수자님들의 지도를 잘 받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배우고 익힌 대로 긴장하지 말고 평소 했던 대로 해 주세요. 2급과 3급 실기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 심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심의위원님께서도 공평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달래 팀장의 소개로 심의위원이 소개되었고, 3급 1조부터 실기 심의가 시작되었다. 심의가 시작되자 심의장은 긴장감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모든 심의가 끝난 후 서울제1지부 최정희 이사의 후원과 최소연 이사장님의 배려로 점심을 함께 했다. 특히 최소연 이사장은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경남지부와 전북지부 지부장 및 회원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지난 2023년 7월 22일 협회 교육장에서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심의가 열렸다.

협회 최소연 심의위원장(무형문화재 제11호 보유자)을 비롯한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있었다. 이날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심의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생활다례와 규방다례를 심의했다.

심의 대상자들은 오전 9시부터 모여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점검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느라 분주했다. 6층 대기실과 3층 심의 장소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심의 대상자들은 심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최소연 심의위원장을 비롯하여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규방다례를 심의했고, 김가영 부회장, 강정자 부회장, 박숙희 부회장은 생활다례를 심의했다. 심의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기분 서울제1지부 지부장, 조영아 인천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최정희 이사, 변명선 이사, 강희옥 감사, 이금숙 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심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각 지부에서 심의를 위해 많은 연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심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행다례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로봇처럼 딱딱하고 절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인과 손님이 차를 마시는 것이 행다례입니다.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다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을 지도해 주셨던 지부장 이하 각 지부의 이수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실기 심의는 총 5조로 구성되었으



며, 1조에 4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시험에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긴장을 하는 법이다. 이후 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생활다례에서는 김가영, 강정자, 박숙희 심의위원들이 “가루차 행다례는 정성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찻잔 잡는 법, 손님께 차를 권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많지만, 이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다. 오늘 부족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연습해 주세요.”라고 심의 위원들이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도 그만큼 커지고, 열기는 뜨거워졌다. 심의위원들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회원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위로와 칭찬, 배려로 웃어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회원들은 단체로 늦은 점심을 먹으며, 서로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2년 동안 대학원을 이끌어 준 반장과 부반장의 노고에 모든 회원이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까지 낙오자 없이 함께한 제21기 대학원생들의 건투를 빈다. 🍀





만물이 자라 결실을 보는 가을은 최고로 신의 축복을 받은 계절이다. 뽕뽕 끓는 듯한 무더위와 태풍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를 보듬어준다. 거리를 걸으며 추억을 반추하는 여유를 주고, 심오한 피아노의 선율이 더욱 아름답게 여겨지는 낭만을 준다.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정갈함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박숙희
한문교육학 박사
협회 총복지부장

가을비, 차 한잔

아, 가을인가
가을인가 봐
물둥이에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길는 아가씨 고개 숙이지

아, 가을인가
가을인가 봐
둥근달이 고요히 창에 비치면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 봐

나운영 작곡의 <아, 가을인가> 가곡이 절로 흥얼거려진다.

가을이구나!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고려의 문신 정사도(鄭思道)의 가을의 차시(茶詩)를 감상해 보자.

정사도(鄭思道: 1318~1379)는 공민왕으로부터 일성군(日城君)에 봉해졌다가 오천군(烏川君)으로 개봉된 고려말의 공신이다. 어릴 때 이름은 양필(良弼)이며, 자는 사도(思道)였다. 과거에 급제 후 공민왕 때 이름을 사도(思道)로 고쳤다. 연일(延日: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읍) 출신이다. 포항 오천읍에 가면, 정몽주 선생을 비롯해 정습명·정사도·정철 등 4명의 인물을 모시는 유서 깊은 오천서원이 있다.

1347년(충목왕 3년)에 ‘대언(代言)’¹⁾으로 ‘정방(政房)’²⁾ 제조(提調)가 되었으며, 경상도순문사, 첨서밀직(僉書密直) 등의 벼슬을 지냈다. 1371년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승진되어 명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다녀왔다. 1375년(우왕 1년) 당시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을 죽이려 하였다고 의심받아 정몽주, 이숭인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 1379년 향년 62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정사도의 <고주사에 머물다(유고주사遊高住寺)>에는 고주사 스님과의 교유가 가을의 붉은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偶出村廬成獨遊 문득 시골집을 홀로 나서서
尋僧馬上更悲秋 스님 찾아 말에 오르니 새삼 가을이 깊었음을 알겠네
長松偃蓋如迎送 축축 늘어진 소나무는 두 팔을 벌려 맞이하는 듯
疊嶂開屏解挽留
첩첩이 쌓인 높은 산들은 병풍 속 그림인 양 나를 감싸안누나
坐久夕陰生遂壑
우두커니 앉았노라니 석양은 깊은 골짜기마다 젖어 들고
風來霜葉亂虛樓
단풍잎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누각 위에 어른거리네
團欒煮茗同清話 서로 즐겁게 차 끓이며 청담을 주고받으니
忘却悠然放逐愁 속세를 떠난 듯 자유로워 모든 근심 사라지네

정사도는 공민왕 초 정승에서 물러나 유유자적하며 13년 동안 날마다 산수에서 노닐며 자연을 벗삼아 즐겼다. 문관이자 장수였던 그이기에 파란 많던 고려 말의 정세 속에 편안한 안정은 자연 속에서나 만끽했을 것이다.

그는 문득 은자(隱者)인 고주사 스님을 홀로 찾아 나섰다. 가을은 혼자 즐기게 한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있고 싶어도 자신을 알아주는 벗과의 여가를 더욱 값지게 여기니 정사도도 마음이 통하는 스님을 찾아가 본다. 가을은 이미 깊었다.

고주사 주변 자연과의 교감을 어찌 말로 표현하려. 산에 들어서자마자 소나무의 향기와 푸근한 산세는 한 번에 사람을 감싸 안는다. 신선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병풍의 빼어난 그림 속인 양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정신을 잃고 빠져본다. 자연은 신비롭고 참으로 맑고 깨끗하다. 나와는 상관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이지만 마음을 비우고 몰입하면 저절로 일치하게 된다.

속세의 번민을 씻고 자신을 정화해 본다. 한참 동안 낮을 잃고 저녁 그늘이 생기고 석양이 물드는 모습을 본다. 꽃보다 더 붉고 석양보다 더 고운 단풍과 교유하며 마음을 순화시킨다. 번민의 티끌들은 가을바람에 씻기고 문득 자신을 응시하게 된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스쳐 가는 누각 위에 스님과 마주 앉았다. 도력 높은 스님과 단란하게 차를 끓이며 교유의 즐거움 속에 잠겨 든다. 모락모락 차

를 마시며 맑고 고요한 이야기를 나누자니 모든 욕심은 사라지고 하늘의 이치를 저절로 깨우칠 만하다. 사람의 욕심이 사라져야만 가을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내 마음과 일치할 수 있다. 나와 스님 외에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산사(山寺)에서의 차는 이제 더 이상의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가장 순수하게 맺어주는 가교로 순수 그 자체요 정화의 표상이다. 자연은 언제 어떤 모양이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들인다. 그 속에 차 한 잔 달여 마시면 삶의 괴로움은 아무 의미도 없이 헛되어 여겨지고 마음은 한껏 시원하여 어느덧 즐거워진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송두리째 우리의 시름을 씻어주는 매체는 차와 벗이다. 자연은 곧 차이다. 차 속에서 자연을 느끼기에 한 잔의 차는 안정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차는 인간이다. 그러기에 고려의 선비들은 그들과 함께 한 다양한 차의 모습에서 때로는 백성들의 고뇌를 보기도 하고 인간적 여유와 흥취를 찾기도 하고 교류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했다. 정신적 수양의 매체로 자신의 본모습을 차 속에서 찾으려 올바른 삶의 목표를 지향해 나갔던 것이다.

가을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싶다. 지친 여름을 씻어내는 맑고 투명한 차물을 보며 향기로운 차향을 가을빛 속에서 마음껏 느껴보고 싶은 날이다. ☀

1) '대언(代言)'은 고려시대 중앙관부였던 밀직사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이다.
2) '정방(政房)'은 1225년(고종 12) 6월,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한 인사 담당 기관이다.

해외여행 시 황열,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질환 주의

여행 4주 전 전문의와 상의 해 백신,
예방약 복용해야!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중 1위가 ‘해외여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을 향해 가면서, 2~3년간 위축됐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때,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 더욱 즐겁고 건강한 여행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전에는 방문 국가가 예방접종이 필요한 국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찾아보고 방문하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해외 감염병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보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 방문을 계획한다면 황열이나 수막염 구균,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대해 미리 약을 드시거나 백신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특히 모기가 매개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황열이나 말라리아, 뎅기열, 치쿤구니아 등이 모두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입니다. 각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 간에 전파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기에 물려 감염이 되면 고열과 오한, 근육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신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지역 방문 시에 주의해야 하는 황열은 적어도 열흘 전에는 예방접종(백신)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말라리아 또한 남미, 아프리카 등 유행지역이 비슷한데 약을 미리 먹거나 매주 복용해야 하는 약 등을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환자는 2020년엔 2억 4,500만 건, 2021년엔 2억 4,700만 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0년 52만 5,000명, 2021년 61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뎅기열이나 치쿤구니아열은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예방법 중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2~4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여행 4주 전에는 감염내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예방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 다녀오신 후에는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후에 여러 가지 피로와 긴장감 완화로 가벼운 몸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감염으로 인한 증상의 경우 고열, 규칙적인 발열 등 단순 몸살로 보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황열과 같이 3~6일의 잠복기를 갖는 바이러스가 있지만,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수개월까지도 잠복할 수 있어서 여행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는 단순 몸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해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환 초기에는 열이 나며 타질 환과 감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없어 말라리아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여행 중에 열이 난다거나 발진, 설사 증상이 있다면 현지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귀국을 서두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나 백신 등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코로나 19와 같이 비말로 인한 감염병 등 감염의 우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여행 전 해당 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귀국 후 의심될만한 증상이 있다면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茶茶茶

회원 글밭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엄마! 패러글라이딩해 보실래요?

스위스 여행기

글_한국문화협회 이사장 최소연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열차 타고 케이블카 타고 산악열차 타고 뢰렌 통나무로 유명한 (한국 사람들의 인증사진 찍는 장소인 듯) 뢰렌에 도착했다. 눈이 가는 곳 어디나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변하는 구름에 따라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진다.

걷다가 뷰 포인트가 제일 좋은 레스토랑을 발견하고, 식사 주문하고 여유롭게 즐기며 사진도 찍고 꽃잎을 넣은 수프와 파스타와 빵으로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산책 후, 내려오는 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뢰렌 통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말 그대로 통나무 의자 뒤로 보이는 아름다운 대자연은 신들의 세계처럼 웅장하고 신비스러웠다. 딸과 뢰렌 통나무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한 아름 담아 오면서 행복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손등이 자꾸 가려워서 긁다가 보니 두드러기가 나 있었고 얼굴도 부어 올라있었다. 난 꽃 알레르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



막내딸과 그린델발트(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악리조트 마을)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지영이가 “엄마 패러글라이딩 해 보시겠어요?” 물어본다.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이가 파일럿에게 카톡으로 내 나이도 괜찮냐고 질문하였고, 한참 있다가 몇 킬로그램이냐고 질문해 와 답을 해주었더니 오케이가 떨어졌다. (몸무게 체크는 파일럿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함이다.) 아! 이젠 어쩔 수 없이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숙소에서 돌아와 알레르기약 먹고 4시에 그들과 만나기로 한 피르스트산 케이블카 앞으로 나갔다. 패러글라이딩 장비와 3명의 파일럿이 앞 케이블카에 탔다. 나와 첫째 딸 막내딸 셋은 뒤 케이블카에 탔다. 나와 첫째 딸 막내딸 셋은 뒤 케이블카에 타고 first(피르스트) 마지막 케이블카 종점에서 내렸다. 걷고 걸어서 패러글라이딩하는 출발선에 도착했다. 그들이 주는 빨간 점퍼를 입었고, 그들은 장비를 펼치고 나와 연결고리를 만든 다음

출발선에 5~6분 정도 서 있었다. 아마 바람의 방향을 보는 것 같다.

내 나이를 걱정했던 파일럿이 나의 침착함에 안심했는지 Run 한다. Run 그래서 달렸고, 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준비하던 막내딸 지영이가 “런! 런! 런! (응원과 염려가 듬뿍 담긴 목소리이다)”이라고 소리친다. 나는 열심히 뛰다 보니 어느덧 다리가 허공에 떠 있지 않은가! 이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고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생처음,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 묘했고,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땅에서 보던, 그냥 까마득히 높이 떠다니던 패러글라이딩을 내가 타고 있다. 하늘에 내 온몸을 맡기고 있었다. 높이 높이 산기슭을 타고 정상

까지 가고 있었고 아침저녁으로 숙소에서 보던 그 꼭대기가 눈을 돌려보니 거기 있었다. 뒤에서 파일럿이 ‘대박’이라고 외친다. 아마도 한국인들이 가르쳐주었을 것이다. 나는 ‘헐’이라고 화답하는 것으로 패러글라이딩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상하게 행복하고 느긋한 즐거움이 생겼다.

그가 포토라고 말하면, 셀카봉을 봐주어야 하고, 비디오 하면 자연스럽게 있으면 된다. 아래를 보라 해서 보니 집들이 손바닥 만해 보인다. 아랫마을은 34도인데 나는 많이 추웠고 구름 속은 습기가 많아서 콧물이 난다는 거 말고는 너무 좋다. 정말 짜릿하고 멋진 일이다. 내가 ‘많이 춥다’고 하자 그도 그렇다고 한다.

20~25분 날아다닌 하늘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이



며 축복이다. 내가 잘 즐기는 것 같으니 파일럿이 마지막 내릴 때 공중회전을 많이 시도했고, 나는 이석증이 있어서 굉장히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땅에 착지하자 말끔히 사라졌다. 제일 먼저 날고 제일 늦게 내려 온 나를 막내딸이 동영상으로 찍어 주어 오랫동안 추억으로 간직하며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스위스 여행이 새록 새록 새롭다. 즐겁고 짜릿했던 스위스 여행기(旅行記)를 차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줄고(拙稿)를 실는다. ☺

고향을 노래하며

글_가천대 길병원 흉부외과 교수 박국양



우리는 / 언어처럼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처럼
고향을 이야기한다

고향은 / 어머니 품과 같아서
떠난 뒤에 더 그리워한다고 누가 말했든가?

학교가 파하면 / 도롱테 책가방 풀숲에 숨겨놓고
헤엄을 치던 그 가을의 다리목 강가

보리밭 깊게 푸르던 산밑 / 늦은 언덕 아래
보고 싶은 순이는 왜 안 오는지
빼꾸기 울던 / 그 봄

대나무숲 / 비둘기 떼 바스락거리는 소리
저 멀리 장리보 얼음 깨지는 소리
제삿날 하얀 쌀밥을 놓칠세라
눈을 비비던 방 아랫목
문풍지 찬바람에 그래도 줄려서
혹시나 내다보면
새벽 손님처럼 몰래 내리던 하얀 함박눈 / 그 겨울

소를 뜯기다가 고삐를 놓으면
개울물 흐르는 소리
금성산 살여울 / 이파리에 맺힌 이슬방울
그 방울마다 맺힌 / 무지개
그 이른 여름 아침

벽옥산에 머물렀던 구름 / 먹을 감던 정자강
이제는 꿈에서조차 그리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깊은 주름 속에서
짓는 눈물

고향에서 자란 우리는 / 그리워한다
돌아갈 품이 없는 어머니처럼
모두가 떠난 뒤에 / 더 그리워한다 ☹️



우연히 알게 된 차문화 사범반

글_경남지부 지도사범 정태수



2021년 봄, (사)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의 제다 실습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공예와 옷칠 공예에 관심이 있어 회사 근처 공방에 다녔는데, 평소 차에도 관심이 있어 공방 선배를 따라갔습니다. 다원에서 처음 만난 지부장님과 사범반 선생님들이 반갑게 대해 주어 가벼운 맘으로 헛차를 타고 술에서 뒤으며 그날 헛차를 다 만들어 조금씩 포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 동안 제다 활동을 하였지만 오래 만난 사이처럼 느껴져 바로 사범반에 등록하여 2년 과정을 마치고 하계 연수에서 2급 수료를 하였습니다.

제다실습으로 차와 인연이 되어 차문화를 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비다례와 차문화 교육을 받으며 그전에는 어설픈 차생활이 선비의 모습으로 물들어 가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쉬는 시간 간간이 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차실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도 좋아졌고, 미흡하나마 차에 관한 지식도 알려주고 같이 차를 마시며 의사소통도 부드러워져서 여러 가지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하

는 틈틈이 차공부도 하면서 지부의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찻집을 열어 작은 다실에서 좋은 다우들과 차 마시며 노후를 보내는 게 꿈입니다.

차공부를 하면서 정신적 수양과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차문화를 다른 선비들에게도 많이 알려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차문화를 소개한 공방 선배와 잘 이끌어 주신 지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각 지회장님과 교육부장님, 사범반 선생님들이 항상 반겨주시고 친절히 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내 몸을 살피는 건강한 음식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정재윤



경남지부 67기 사범반 다식 수업입니다.

2018년 제38회 차의 날 기념 <전국 차인 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 대상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어 지부장님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흑임자다식과 송화다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송화가루의 부드러움, 반죽을 위해 꿀을 조금씩 넣고 저으며 반죽합니다. 송화다식의 밀향에 반했습니다.

녹차와 함께 다식 맛을 보니 과연 송화다식과 흑임자다식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범반 선생님들은 반죽하고 다식틀에 찍으며 메모도 열심히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핏가루를 듬뿍 넣고 상투과자를 만들어 봅니다. 얼마 전 어쭙잖게 다쳐서 발에 편을 심었습니다.

빼기 하루 전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의 수난에 나의 작은 고통도 함께 느끼면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을 내려놓아야 할지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의 약속, 내 몸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행동도

가려서 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요즘은 아픈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작은 병에서 큰 병까지.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우리의 몸에 적용하면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느 한 장기가 나빠져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나의 몸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우리들의 몸이 알아봐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 주는 신호를 잘 알 수 있게 잘 살피자면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잘살아가야겠습니다. ☺



차에 관해서 알게 되었다

글_서울제1지부 4학기 졸업생 김세정



2년 동안 배우면서 코로나로 줌과 영상으로 활용하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지부장님과 총무님, 여러 선생님과 함께해서 즐겁고 매번 힘을 다시 낼 수 있었습니다. 필기에 이어 실기까지 섬세한 부분까지 잘 익히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낌없는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글_서울제1지부 4학기 졸업생 김정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시작된 차문화 수업이 어느새 2년을 지내고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시간이 쏙살 같다는 표현이 확 와닿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인원수 제한을 두고야 모일 수 있었는데 마스크 없이 필기, 실기시험을 치렀으니 말이죠.

필기시험, 실기시험 치르면서 선배님들과 총무님, 지부장님의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가 많은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선배님과 후배들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차문화협회가 더 성장 발전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세계를 이어가는 茶, 함께 마시고 함께 누린다

(茶和世界, 供品共享)

2급 예절지도사 시험을 마치면서...



글_서울제1지부 64기 졸업생 이봉련

2년 동안 힘들게 시간을 내면서 매번 강의 들으러 갔다. 제일 걱정했던 심의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니 마음은 홀가분해진다. 그 동안 협회에 오가며 받은 좋은 인연, 좋은 경험 간단히 소감으로 올리 고자 한다.

차에 대한 지식은 사실 우리 차문화협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차의 역사, 차의 제다 과정, 차인의 정신, 차로 인한 건강 등등. 그로 인해 더욱더 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어쩌면 한국차문화협회가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차인의 길에 소중한 길잡이가 아닐까 싶다.

매번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바쁜 와중에도 오셔서 정성답아 준비하신 음식으로, 마음으로 배려해주시는 큰 선생님들, 모름지기 곁에서 도우시고 계시는 사범선생님들, 후배로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많이 느끼곤 했다.

중국 <후베이성육우차문화연구회전문가위원

회> 회장이신 저의 우한 ZENG FANREN 선생님의 갑자기 정했던 방한일정으로,언제부터 하고 싶었던 차문화 교류를 이기분 지부장님께 하루 전에 급히 요청을 구했다. 그리하여 7월 26일(저녁 7시)로, 모두 여덟분이 참석했다.

급한 모임으로 많이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소박하고 즐거운 교류가 된 것 같다.

먼저 우리 한국 생활다례 시범을 선생님한테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예의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문화, 차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보아도 참 예쁘고 여성스럽다.

우한 선생님은 차를 내리시는 맛이 최고 이시다. 중국에 차산지, 차를 오래 마신분들도 이 분이 내려주신 차맛에 반해 멀리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선생님 전문은 차가 아니시지만 80년대 일본에서 다도에 푹 빠지신 후부터 인생

“선생님이 한국차문화협회를
우한으로 초대하셨다.
한중차문화교류도
자주 오가면서 좋은 일들을
함께 이어가시자 하셨다.”

취미였다. 차는 그런 매력이 있는 같다. 그날 선생님이 직접 가져오신, 시중에 보기 드문 귀한 차 몇 가지 를 직접 내려주셨다. 1988년도 숙성차-무의암차, 2023년 첫물차-로우만어(老曼峨) 등 많은 분들의 질문도 받아주시고 맛도 감상하고 분위기가 참 보기 좋았다.

선생님이 한국차문화협회를 우한으로 초대하셨다. 한중차문화교류도 자주 오가면서 좋은 일들을 함께 이어가시자 하셨다.

행사가 끝난 후, 선물교환도 하고 기념사진도 남겼다. 모두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니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되었다.

힘들던 코로나시대도 이제 지났으니 한국차문화도 국제적으로도 더 많이 넓어지고 또 많은 교류 행사를 통해 더욱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 ☺



중랑구 장미꽃 축제 행사장에서 전통 성년식 행사 주관하다

글_서울제2지부 이사 류소영

서울제2지부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중랑구에서 열리는 장미꽃 축제 행사장에서 전통 성년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년이 되는 8명(남 4명, 여 4명)의 학생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그리고 박광옥 부회장, 서울제2지부 선생님들이 함께 한 행사였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던 가슴을 펴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나누는 행사가 되어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년식 행사장에는 류경기 구청장과 국회의원 그

리고 지역 의원들과 장미꽃 축제에 참석하신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께서도 전통 성년식에 한복을 챙겨 입으시고 행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학생들의 전통 성년식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행사 당일 새벽에 부회장님과 지부 선생님들이 행사장에 모여 리허설을 할 때도 구청 직원들도 일찍



오셔서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마음들이 학생들에게 전해져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성년식 때 느꼈던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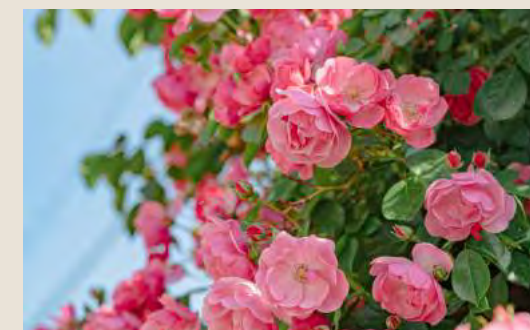
성년이 되는 8명(남 4명, 여 4명)의 학생들이 성년식이 끝나고 자신들의 마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과 성년식을 올린 학생 부모님이 오셔서 감격하시며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행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字)를 내려주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긴 시간을 기다리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셨는데 참석한 어르신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시면서도 행사가 좋았다고 하시며, 우리 구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경하셨던 많은

시민도 이런 전통 문화행사를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전통문화에 많은 분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 구청장님도 인사하시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두려 한다고 하시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년례를 통해 우리의 전통을 잘 계승 발전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나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



강진 다산초당과 백련사 차문화 답사기(踏査記)



글_순천지부 사범교육생 조혜숙

순천지부에서는 지난 7월 8일(토) 강진 다산초당과 백련사로의 차문화 답사를 떠났다. 먼저 박물관을 둘러 정약용 선생의 유배 18년의 흔적 속 다산학의 산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수많은 자료를 관람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왔다.

우리는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다산초당으로 향했다. 초당으로 가기 위해 茶山을 오르는 가파른 숲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초당에 도착하여 텃마루에 앉아 잠시 목을 축이고 난 후 선생의 유배 생활 중 초당에서 10년의 삶을 되새겨 보았다. 강진 읍내에서 8년여를 거주하다가 무진년(1808년) 봄 초당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초당은 원래 고



산 윤선도의 후손인 윤단(尹搏)의 서고였다. 선생은 다산학을 집대성하면서 틈틈이 초당의 주변에 四景(다조, 약천, 정석, 연지 석가산)을 조성하였다. 우리는 먼저 사경의 하나인 다조(茶竈)를 살펴 보았다. 선생이 이사한 후 뜰 앞에 다조를 만들어 놓고 매일 술방울을 주워다 차를 끓여 마셨다는 시구를 떠올려본다.

“흙으로 쌓아서 만든 자그만 茶竈
바람 잘 통해 차 끓이기 좋아라.
차는 익고 차 끓이던 동자는 즐거니
피어오르는 다연(茶煙)만 오히려 푸르네.”

다조(茶竈) 가까이 약천(藥泉)이 있었다. 돌 틈에서 조금씩 솟아오르는 고인 물 받아 차 생활을 즐겼던 선생의 모습과 차 맛을 잠시 떠올려보았다. 초당의 서편 석벽에 선생이 직접 새긴 정석(丁石) 두 글자는 다산선생의 섬세한 성품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그뿐인가 동암과 서암사이에 연지 석가산 못에 비류 폭포를 조성하여 초당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울창한 숲속에 새소리와 비류

“아침 햇살이 처음 비칠 때나,
맑게 갠 하늘에 흰 구름이 뚝뚝 떠 있을 때나,
낮잠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나,
밝은 달의 푸른 난간에 걸려 있을 때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그 자체였다.

우리는 다시 초당에서 내려와 다산 정약용 선생과 해장 선사의 첫 만남의 장소인 백련사로 향했다. 유배 생활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다산선생은 마음을 식히기 위해 백련사로 나들이 갔다. 그곳에서 해장 선사를 만나 만경루에서 한나절 다담을 나누었던 그 자리에 우리 일행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겼다. 만경루에서 바라본 강진만의 풍경과 백일홍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우리는 백련사 다실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다 함께 절명소를 낭송했다.

“(중략) 아침 햇살이 처음 비칠 때나, 맑게 갠 하늘에 흰 구름이 뚝뚝 떠 있을 때나,
낮잠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나, 밝은 달의 푸른 난간에 걸려 있을 때나, ...”

다산선생과 해장 선사 두 분의 우정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년 봄 다시 오기를 약속하며 백련사를 내려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다산 정

약용 선생 유배 18년의 삶을 상기해본다. 자연과 더불어 마음을 달래며 곤욕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선생의 위대한 삶을 모습을... ㉞



茶 도구가 내게 주는 의미

글_전남지부장 서난경



“서기자! 차와 초의선사에 대해 한번 써보지.”

편집국장님의 이말 한마디가 나의 차 생활의 시작이 되었다. 커피에 찌들어 사는 나에게 차는 그저 번거롭고 까다로운 음료였다. 주어진 과제 앞에 「우리차의 재조명」 저자인 故 최계원 관장님을 찾아 실마리를 풀어 보기로 했다. 최 관장님은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뵙고 다짜고짜,

“관장님 차가 뭐니까?”라고 물었다.

“글쎄” 하시며 하얀 백자 찻잔에 연두빛 녹차를 우려 주셨다. 뚝고 쓴 티백 녹차가 익숙했던 내게는 또 다른 신세계의 맛이였다.

‘차 맛이 이런 맛이었어?’

가우뚱거리는 나를 보시고 예쁜 찻잔과 함께 故 이강재 님, 故 조기정 님, 故 법정스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셨다. 차와 초의선사에 관해 쓴다는데 자료는 안 주시고 ‘왜? 사람들을 만나지’하는 의구심이 생겼지만, 당시 존경받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의 차 생활을 인터뷰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나섰다. 그분들 역시 뚜렷한 대답 없이 故 법정스님은 차 한잔 우려 주시더니 부채에 찻잔과 다관

을 그려 넣고 ‘빛과 향기와 맛을 온전히 할지로드’를 적어 주셨다. 故 이강재 님은 수제 작설차 한 봉지를 故 조기정 님은 손수 만드신 다기 세트를 선물로 주셨다. 찻잔 하나, 작설차 한 봉지, 귀한 상감 다기 세트. 다관과 찻잔이 그려진 부채 한 점이 내가 마주한 ‘차와 초의선사’였다.

다기는 내 젊은 날의 흔적이자 원동력이다

작설차를 다기에 우려 마시면서 왜 이분들이 내게 이런 선물을 하셨을까? 깊은 고민과 함께 내게 화두로 주어진 차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찌어찌 기사는 써냈고 몇 회에 걸쳐 연재도 했지만 그리 기억나지 않는 걸 보면 졸작이었나 보다. 이후 난 커피보다는 차를 찾았고 그때 인연을 맺은 도예가와 차인들을 통해 다기와 차에 관한 용품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워낙 그릇 욕심이 많기도 했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큰아들 상우가 2001년 광주시 교환 학생으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와 중국 광저우시가 자매결연을 한 터라 상우는 광저우에서 마련해준 4가정에서 최고의 중국 생활문화와 차문

화를 경험했고, 몇 해에 걸쳐 난 우리의 공예품을 감사의 선물로 보냈고, 그들은 내게 자사호와 차들을 보내왔다. 이면에는 상우가 “엄마는 차를 좋아하신다.”는 정보를 주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茶라는 매개체로 홈스테이 가족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당시 자사호는 주전자 모으기를 좋아하던 나에게 작고 예쁜 주전자였다. 다기와 자사호가 장식장을 메워가던 중 문득 저 예쁜 그릇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茶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고 당시 호남지부 광주지회를 찾아 차문화를 접하고 목포대 대학원 국제차문화과학과에 진학하면서 차에 대한 과학적 이론 접근을 했으며 남부대 대학원에서는 품평을 전공해 학위를 받았다. 공부하는 동안 해외 차산지를 찾아다녔고 그들의 차문화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귀국 길에는 꼭 그 나라 다기 용품이 가방 가득 실려 있었다.

홍차를 공부하면서는 유럽의 차 용기들의 심미안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젠 병인듯싶어 그만두려 하는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차실에 들어가 다기들을 한번 둘러보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냥 입꼬리가 올라간다.



친정엄마는 어린 시절에도 하지 않던 소꿉장난을 한다면서 찻잔을 주신다. 이삿짐센터에서도 포장 이사를 안 해준다. 씹씹거리며 다기들을 하나하나 포장을 하다 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렇게 이삿짐 포장을 하다 보면 그 기물들과 어우러지는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랬다. 다기들은 내 젊은 날의 흔적들이었다. 내 삶의 원동력이었고 내게 준 선물이었다. 지금도 난 내게 선물을 한다. 주어진 일을 잘해 냈을 때...

어느 순간 찻그릇들은 열심히 살아온 나의 전리품인 것 같다. 처음 내게 찻잔을 선물해 주시면서 아무 말 없이 차 생활을 몸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셨던 故 최계원 관장님의 깊은 뜻은 아직도 헤아리지 못한다. 다만 그분들의 차 생활을 닮고자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어느덧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고 차는 내게 주어지는 하루의 격을 더 해가는 것 같다.

작은 찻잔 하나가 나의 차 생활을 있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게서 활력을 잃어가는 다기들을 시집 보내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님들을 찾아줄까 싶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처럼 차에 입문할 수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차 도구를 건네주셨던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



2023년도 인천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진행

경남지부 하식 이사, 서울제2지부 류소영 이사
2023년도 규방다레 이수자 선정

(사)규방다레보존회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2023년도 인천무형문화재 이수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이수 심사 대상자는 서울제2지부 류소영, 경남지부 하식 전문사범 2명이었다. 이수 심사를 앞두고 류소영, 하식 전문사범은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오고 가며 몇날 며칠을 연습에 땀을 흘렸고, 연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많은 이수자들은 여러모로 힘을 실어주었다.

많은 이들의 바람과 최선을 다해 준비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2023년 7월 10일자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결과 공고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인천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레는 보유자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미리, 박광옥 2명의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33명, 전수장학생 2명으로 더욱 탄탄한 전승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여름방학 체험교실

생활다레, 선비다레, 가루차 행다레 체험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일반 시민 및 학생, 특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강 “재미 온(溫, on), 온가족 함께 문화유산 놀이터” 전통문화 무료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4주간 진행하였다. 규방다레는 생활다레, 선비다레, 가루차 행다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

록 하면서 매시간 다양한 차와 다식을 준비하여 가족들 간에 서로 교류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름방학 체험교실에서는 다례체험 뿐만 아니라 단청, 화각, 민요 등 인천의 무형문화재 이수자부터 보유자 등 직급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무료로 체험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끌어냈다. 🌸

인천도호부관아 달빛음악회 찾자리

규방다레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 봉사

지난 6월 17일 (재)가천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도호부관아에서 달빛음악회가 열렸다. 저녁 6시 30분에 진행되는 달빛음악회에 앞서 부대행사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규방다레보존회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수자들과 전수장학생이 따뜻한 차와 떡을 나누며 즐거운 찾자리 행사와 달밤의 정취를 물씬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교육위원회 개최

전반기 결과보고 및 하반기 계획 의견 교환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협회 교육장에서 6월 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지부장, 이사 등이 참석한 교육위원회는 협회 하반기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발전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지부별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어 협회의 모임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회의 발전이 지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총회 및 교육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회장님들과 각지부의 지부장님, 이사님들께서는 하반기 협회 발전에 대한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민달래 팀장의 제26회 온라인 전국청소년차예절 경연대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7월 자격검정 계획, 제61회 하계연수회 계획, 제22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계획, 제68기 지도사범 교육계획, 기타 안건으로 하반기 행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제26회 온라인 전국청소년차예절 경연대회 보고에서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총 127명이 참석하였고, 수상은 2023년 5월 20일 인천도호부관아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음을 보고했다. 또한 (사)규방다례보존회 최소연 이사장이 5인 다기, 3인 다기, 텀블러, 다과 등을 찬조해

주었으며, 임원으로는 강순란, 강정자, 강희옥, 김가영, 김미숙, 김영애, 김태임, 노영숙, 류소영, 문차남, 박경숙, 박광옥, 박숙희, 변명선, 서명주, 연규남, 유미현, 이림, 이광용, 이금숙, 이기분, 이막동, 이명숙, 이석예, 장효순, 정경희, 조영아, 조정미, 차영민, 최정희, 최지원, 허경남, 황미경 등이 금일봉, 한국제다와 이기분, 조영아, 문차남, 류소영, 장효순 등이 떡, 과일, 애그타르트 등과 점심을 찬조해 주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7월 가격검정 시행 계획에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아닌, 서울 협회에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계연수회에는 잠정적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라비도리조트에서 2023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 전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하계연수회는 그 어느 해보다 강사진의 짜임새가 훌륭하다는 평가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응급의학에 대한 정보부터, 서양의 차문화와 최지원의 풍류사상의 최고 권위자들이 강사진으로 포진하고 있어, 회원들에게는 더욱이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차질이 빚어진 관계로 제22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시간 동안 이어진 교육위원회는 열띤 토론과 의견으로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끝이 났다. 점심은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과 최정희 이사가 준비하여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했다.

6월 정기총회를 대신하여 개최된 교육위원회는 알찬 의견 교환과 다양한 하반기 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 외 회원 협회 방문

협회 최소연 이사장 외 부회장단과 면담

지난 7월 3일 오전 11시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을 비롯하여 회원 4명이 협회를 방문했다. 교토지부는 지난 2016년 3월 17일 개설하여 일본에서 우리 차문화를 보급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교토지부 개설 후 조화미 지부장은 일본 내 한국의 차문화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제일교포이기도 하다.

협회에서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과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등이 교토지부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면담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매년 협회를 방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또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화미 지부장 이하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일일이 안아 주었다.

조화미 지부장은 “협회를 오는 것은 항상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꼭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교토지부의 서울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강정자 부회장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다. 강정자 부회장은 “멀리 교토에서도 오시는데 경남에서 오는 것은 그리 힘든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차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고 있는 교토지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했다.

최소연 이사장과 조화미 지부장 등 협회 임원들은 한국의 차문화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중에서 이번에 『한국의 차문화』 일본어 책자 발간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박광옥 부회장은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우리의 차문화를 글로벌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어를 가장 먼저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교토지부를 각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차문화를 일본에 보급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협회를 방문한다고 하여 그동안 작업한 일본의 가제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어 권위자이자 차문화에도 조예가 깊으신 중앙대 명예교수인 박전열 교수님께 의뢰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와 일본인이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제본을 보시고 고쳤으면 하는 문구는 말씀해 주시면

일본어 발행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화미 지부장은 “교토지부에서 공부하는 회원 중에는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본어 책자 발간은 우리 교토지부에게는 단비 같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소연 이사장님 이하 협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다국어 발간에 대해 생각해 왔었습니다. 『한국의 차문화』를 발간하는데 있어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의 문화를 하나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일본어 발간은 최고의 권위자에게서 최고의 번역으로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여 우리의 차문화가 일본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토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조화미 지부장은 일본어 책자의 발간으로 한국의 차문화가 일본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차인들에게 문호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했다. 협회를 방문한 교토지부에 최소연 이사장은 금일봉을 비롯하여 각종 차와 기념 컵, 협회 로고가 들어 간 옷 등을 선물로 주었다. 교토지부 또한 일본과자 등을 선물로 가져와 선물 교환식을 가지기도 했다. 오후 시간에는 일본 교토지부의 교육 내용과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폭 넓은 의견 교환을 나눴다. 특히 일본에서의 한국의 차문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을 나눴다.

“교토지부가 일본에서 우리 협회의 거점 지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

“급변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현대 생활에 맞는 행다로 차문화가
세계화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다.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교토지부를 볼 때마다 큰 감명을 받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 홍차나 규방다례 시연 등 프로그램 교육을 넣어서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협회에 와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서 일본에 전파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교토지부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국의 차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교토지부의 노력을 치하하며, 한국의 차문화 전통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화미 교토지부장은 “교토에도 한인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의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한국을 방문할 때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홍차나 중국차 등 협회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시 일본에서 한국의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박광옥 부회장은 “오늘 교토지부의 협회 방문으로 더욱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토지부 회원들이 협회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차문화가 세계화 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최소연 이사장 및 협회 임원들은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과 회원과 면담 내내 웃음꽃이 피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급변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현대 생활에 맞는 행다로 차문화가 세계화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

山居漫吟 산에 살면서 읊음

다송자 금명 보정(1861-1930) 선사가 지은 『다송시고 茶松詩稿』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身作閑雲影自孤 신작한운영자고
故携群鶴强相呼 고휴군학강상호
煎茶常誦東茶頌 전다상송동다송
佩印必摹南印圖 패인필모남인도

구름 같은 신세에 그림자도 외로워 학의 뒤를 쫓아가며
억지로 불러보네. 차를 달이면서 「동다송」을 외우고 인
장을 찰 때에는 남인도를 본받는다.

한편, 금명 보정 선사는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입고 그들
의 茶脈을 이은 사람이 바로 금명 보정이다. 금명은 차
를 직접 재배하였고, 90여 수의 많은 茶詩를 남기고 있
다. 또한 초의와 범해의 학풍을 이어받은 금명은 '전통의
집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조계고승전(曹溪高僧傳)』 등
17종이나 되는 저술과 편찬서를 남기고 있다.

금명 스님의 많은 저술 중에서 『다송시고(茶松詩稿)』는 주옥같은 다시(茶詩)의 보고이며, 한국 다풍을 이루
었다. 보정의 자호는 다송자 인데 차를 즐기는 송광사 스님이란 뜻으로 근세에 보기 드문 학승이다.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입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演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演寶鼎의 禪 사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 아산지부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강원지부

아름다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을 찾아서

춘천향교에 대한 설명, 전통예절, 다례체험 교육



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는 지난 8월 14, 16일 양일간 국군 장병과 초급 간부들에게 아름다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을 찾아서 “춘천향교에 대한 설명, 전통예절, 다례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인 춘천향교 소개, 우리 옷 바로 입기, 배례법, 선비다례 체험” 등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을 받은 국군 장병과 초급 간부들은 “교육내용이 유익했으며,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로 교육을 맡은 강원지부로서는 큰 보람이었다.

글_사범교육생 김복순



글로벌 티 중국차반 1학기 종강식 가져

중국차반 18명 수료증 전달

지난 7월 26일 강원지부는 송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글로벌 티 중국차반 1학기 종강식을 송곡대학교 평생교육 박은주 원장과 강원지부 사범, 임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종강식에는 중국차반 1학기 과정 18명의 수료증 전달과 함께 수료식도 함께 열었다. 특히 청평사 주지 도후 스님께서 차의 향기에 대한 덕담도 함께 해주셨다.

박은주 송곡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은 김미숙 지부장이 지도교수로 함께하는 글로벌 티 과정의 연장선으로 9월 7일에 개강할 혁신 국가사업에 홍차

전문가 과정에도 함께하여 한국차문화협회 강원지부와 송곡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티 과정이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했다.

이날 종강식에 조별 아름다운 찻자리 꾸미기 콘테스트도 함께하여 그동안 배운 기량을 멋지게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과정을 마치면서 김은정, 이임순 선생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8월 하계연수 때 자격증을 받게 되어 기쁨이 더욱 크다.



경 남 지 부

차(茶)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행다를 통해 풍요로운 차의 세계를 경험하다



지부장 황미경

막연히 차를 좋아하던 저는 차를 즐기는 차인들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몸에도 좋은 차를 배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차문화협회도 잘 모른 채 64기로 경남지부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동안 4학기의 모든 과정이 ‘어쩔 이렇게 빨리 흘러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다실습에서 처음 차잎을 따서 무쇠솥에 덖어, 식혀 비비고 털고 또 덖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차잎의 변신에 놀라고 이런 체험을 하는 나 자신에 놀라는 동안 맛있는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시간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5월 차의 날 행사에서는 차음식 매작과를 출품하여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인성예절 시간에 백자 다기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다루며 다관 뚜껑에 살짝 올린 손 모양이 꽃봉오리가 되어갑니다. 행다 시 허리는 곧게 펴는 연습을 하며 어느새 발걸음도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풍이나 집안의 예절



교육을 찾아보기 힘들고 걸치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범반 교육 과정에서 전통 복식과 상례 등을 배우며 오래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의 상례의 풍경들과 그때 상주인 아버지 어머니의 옷차림이 머릿속을 스쳐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현듯 제 아이들에게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하는 우리의 풍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차가 몸과 맘 건강에도 좋으며 차와 관련된 예술 문화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한 보따리 생겨났습니다. 자격검정을 준비하며 인성예절 행다례를 다듬느라 시간을 쪼개서 함안에서 마산으로 바쁘게 다니고 [한국의 차문화] 책을 열심히 뒤적이며 공부하였습니다. 자격시험을 앞두고는 가슴 두근거림과



혹 재시험을 보게 될까 봐 내내 긴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 오가며 동기 선생님들과 더 친해졌고 지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어르신들을 상대하다 보니 한동안 우울증으로 울적했던 마음에 사범반 수업이 새로운 동기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흠집투성이었던 마음을 보듬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젠 차문화대학원 과정에 등록하려 합니다. 길이 멀어 몇 번 망설였는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배워 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지부장님, 고문님, 선배 사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의 날 행사에 인천까지 달려와 준 남편과 우리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글_64기 사범반 안선희

교 토 지 부

제12회 요시다야마대차회에서 부스 운영

한국의 하동 야생 녹차 선보이다



지부장 조화미

교토지부는 지난 2023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동안 열린 '제12회 요시다야마대차회'에 참석하여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찾자리 주제는 '하동 야생 녹차의 매력'이었다.

쓰고, 땀고, 진한 일본 녹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동 야생 녹차의 매력을 이해시킬까 고민이 앞섰다.

한국의 녹차 문화는 양반문화이다. 또한 물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약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녹차에는 맛과 향, 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색, 향, 미의 녹차 맛을 즐기려면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모든 것



을 빨리 요구하는 시대에 천천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설명했다.

찾자리 체험은 한 번에 15명으로 이틀간 12회를 하여 약 180여 명에게 한국의 녹차를 제공했다. 찾자리를 찾은 손님들은 한국의 녹차 맛에 놀라고, 앞으로 한국 녹차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사실 힘든 이벤트였다. 하지만 차권(茶券)이 순식간에 팔렸고, 일본 손님들의 아낌없는 칭찬을 들으니 우리 교토지부 회원들은 큰 보람을 느꼈다.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대면으로 진행되어 한층 밝은 모습이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지회장 3명 임명장 수여식과 지부장 고희연 찾자리 마련

모든 회원이 합심하여 월례회모임 가지다

대구경북제1지부는 코로나 때부터 월례회모임을 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 오랜만에 지회장 3명의 임명장과 지부장 고희연 기념 등 제법 거창하게 진행되었다.

회장부터 술선수범하였고, 그에 따라 모든 사범님이 합심하여 음식을 장만하였다. 찾자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식이 찾자리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우리만의 시간을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뒷사람을 존경하는 모든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보람이 느껴지는 월례회모임이었다. 지부장으로서의 뿌듯하고 가슴 뭉클한 이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다.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님 감사하고 고맙게 사랑합니다.



지부장 박경숙

차음식경연대회에서 3명 최우수상 수상 기염

회원 모두 열정이 만들어 낸 결과

전국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 및 차의 날 기념식을 위해 회원 23명이 인천에 있는 인천도호부관아를 향해 버스에 올라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식, 중식, 석식 외 간식까지 준비하는 총무님의 수고가 없었다면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교육생들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찾자리 준비에 바쁘고, 사범들은 차음식경연대회에 출품할 차음식 세팅에 온 정성을 다했다.

모두 각 분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라 분주한 하루였다. 박경숙 지부장은 전국차인큰잔치 식전 행사인 헌다례와 규방다례 시연이 있어 더욱 바쁘다.

대구경북제1지부는 땀을 흘린 만큼 성과도 있었다. 차음식경연대회에 출품한 3점 모두 최우수상을 받았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 힘이 들었지만, 우리 지부의 단합과 화합을 다시 느끼

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차음식 평가에서 임원진분들의 호평을 들어서 그런지 더욱 감사했고, 오랜만에 전국 지부 선생님들 만나서 기뻐다.

참석하지 못한 지부 회원님들이 응원하며 찬조해주셔서 고맙다. 이번 전국차인큰잔치를 통해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님들 서로 도우며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최고의 차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제1지부

아시아 킹 스텐트맨 정판렌과 차문화 교류의 밤

후베이성 육우 차문화 연구회 회장, 우한 흑차 박물관 대표



지부장 이기분

후베이성 육우 차문화 연구회 회장이자 우한 흑차 박물관 대표이기도 한 정판렌이 서울제1지부를 방문했다. 정판렌은 취미가 車, 茶라고 했다. 그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60이 훌쩍 넘은 신사로 예와 배려가 몸에 배어있었다.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태야겠다 싶어서 분청사기 박지기법으로 꽃을 새긴 미니 청자 꽃병 하나 가지고 갔다.

7시에 모여서 급조된 생활차 시연은 무사히 잘 마쳤고, 밤 11시까지 진행된 찾자리는 고가의 대홍포를 우리고 또 다른 고가의 차와 혼합해서 증기로 열탕 하듯이 짹짹 오래 끓여 마시기도 하고, 봉황단충도 마시고 로망허라는 차는 마치 칩즙을 마

시는 것 같았다. 이석예 이사님께서 좋은 차와 예쁜 다식들로 자리를 빛내 주셨고, 지부장님께서 무이산서 구매한 정산소종이랑 육계를 나눔 해주었다.

중국차의 또 다른 음용법과 보이차 한 덩어리가 벤츠 한 대 값이라는 중국차의 가격에 놀랐다. 작은 선물하나에 백배로 보상받고 완전 황제한 행운의 찾자리였다.

이 차는 누구랑 마실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고민하다가 하나는 개강식 날 전원이 다 마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나는 행복한 상상으로 당분간 간직하기로 했다.

글_ 전문사범 박성숙



차문화대학원 과정을 마치며

이제야 못다 한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다

2004년도 여름, 사범과정을 마친 후부터 차문화대학원 입학은 저에게 못다 한 숙제였습니다. 일 년 간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을 앞둔 지금, 이제야 오랜 시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마치는 기분입니다. 작년 가을 대학원 입학을 결심한 후 새로운 교육생 한복을 맞추고 첫 개강식에 참석했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래간만에 입어본 한복도 어색하고 공수한 내 손도, 새로운 지부의 건물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낯설기 그지없었지만, 茶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모든 게 신선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중이라 대학원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했고, 그래서 동기들의 얼굴과 이름을 제대로 익힌 것도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거듭해가며 전남지부, 광주지부, 인천무형문화재전수관 등 여러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구레로 떠난 차문화기행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원 졸업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나름으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차문화 이론을 정리하고 행다를 몸에 익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유용한 지식과 경험도 얻었지만, 무엇보다 전국에 차를 함께 공부하는 멋진 다우들이 생긴 것이 가장 값진 수확이었

습니다. 일 년간 배우고 익혀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더욱 또렷이 보입니다. 성장한 자신은 졸업으로 축하해 주고 앞으로도 배우고 나누는 茶人이 되도록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이사장님과 전수자 선생님들, 여러 이사님과 서울1지부 지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글_ 대학원 21기 강유리



서울 제2지부

청음복지관 소속 청각장애우에게 생활차 강의 생활차, 냉차, 다식을 함께 나누다



지부장 박광옥

지난 6월 2일 떨리는 마음으로 협회 문을 열었다. 3주일 전 청음복지관 소속 청각장애우 바리스타들에게 수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저녁 시간 강의라 망설여졌고 코로나로 인해 대외 활동이 많이 없었던 터라 부담되었다. 하지만 경험을 해보고픈 마음에 1주일간 서둘러 교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말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용을 전달해야 할까? 강의자료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 고민 끝에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상태로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굉장한 중압감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내가 준비한 생활차의 기본이 잘 전해질까?

근무를 끝내고 오는 그분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다식을 만들고 냉차를 우려서 찾자리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손짓과 동작으로 생활차 우림을 알려주었다. 직접 우린 차를 가지고 다식을 드시는 그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생각보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생활차 우림에 정성을 다하여 열성적으로 따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뿌듯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의 수업을 믿고 맡겨주신 부회장님, 평일인데도 직장에 반차를 내고 도와주신 김구환 동기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응원하고 강의 마무리를 도와주신 협회 민 팀장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글_전문사범 허유진



순천지부

순천지부 회원들 보성군 '초루'에서 단합대회 수류화개(水流花開)를 체험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지다



지부장 김영애

순천지부 회원들은 지난 7월 21일(금) 무더위를 식히고자 시원한 장소를 찾아 떠났다. 그곳은 보성군 득량면 오봉산 기슭에 있는 「초루」였다.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초루는 자연 속에 숨어있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한국적 모더니즘을 뛰어넘은 건축 공간에 자연을 충분히 끌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힐링할 수 있는 멋진 쉼터였다. 이 같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녹차 식초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어 시음하면서 무더위를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다. 회원들은 각자 브랜딩한 음료를 준비하여 주어진 자리에 앉아 차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부담 없이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본 후 찾잔

에 일렁이는 첫 향과 맛을 인지하고, 매 순간 피어 오르고 사라지는 맛과 향의 변화됨을 알아차리며 고요 속에 잠겨보았다. 자연과 하나 되는 차를 음미하는 이 순간이 바로 수류화개(水流花開)였다.

글_사범교육생 조혜숙



사진출처_주말부부의 두집살림 <https://m.blog.naver.com/ssh4701/223078330826>

아 산 지 부

아산 문화재야행 사범과 교육생 참여

찾자리 시음회 자리를 마련, 큰 호응 얻어

중부권 유일의 민속 마을인 아산 외암마을에서 조선시대의 품격있는 선비문화와 마을공동체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 <아산 문화재야행>에 아산지부가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600년의 역사를 지켜온 외암마을은 마을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이다.

아산지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문화재 행사에서 교육생 사범들과 함께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달밤에 고택에서 마셔보는 찾자리는 운치가 있었고,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 들도록 연출했다.



대청마루에서 선비차 시음, 뽕마루에서 어린이 다도 체험과 성인들에게 차 시음회 자리를 마련했다. 도포와 갓을 쓰고 조선시대 양반이 된 듯한 관광객들은 새로운 경험에 호뭇했고, 차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지부장 김태임

문화원 다도반 개설

초급과 중급과정 진행

아산지부는 문화원 다도반을 개설하고 개강식을 했다. 개강과 함께 한 학기 수업을 진행했다.

다도반은 초급에서 중급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차를 처음 대하는 차인들에게 기초반 수업은 항상 조심스럽다. 차란 무엇인가?, 차를 왜 마셔야 하는가? 등 쉬운 것 같지만 전혀 쉽지 않다. 단시간에



다도의 깊이를 알 수 없다. 또한 차를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차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은 그만큼 소중하다. 차분히 공부시켜 아름다운 차인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본다.

5년째 다도와 명상 수업

발달장애우에게 차와 예절 교육을 하다

아산지부는 5년째 발달장애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이가 청년인데도 생각하는 것은 5살 어린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우들이다.

녹차, 보이차, 대용차, 꽃차, 백차, 홍차 등 다양한 차를 맛보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다.

이번 학기는 여러 가지 차를 다루며 차를 통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장애를 가졌지만, 비교적 잘 따라 하고 차실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기도 하다. 처음에는 적



응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세도 바르고 행동거지가 어른스러워졌다. 다도와 명상 수업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였고, 이제는 종강했다.

사단법인 좋은복지에서는 김태임 지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향교 유림회 예절교육에 아산지부 참가

15년째 이어온 온양향교에서 수업 진행

올해로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향교 유림회 예절교육을 해마다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는 온양 향교에서 실시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수업이 진행 된 이번 예절교육은 예절과 우리의 삶, 충무공의 효 정신, 한자 교육의 필요성, 효의



현대적 정신 등이었다. 그리고 아산지부에서는 절에 대한 예절로 전통 배례법, 남자 절, 여자 절 실습과 현대 예절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김태임 지부장, 순천향대 통과의례 특강

통과의례로 본 관계례(성년식) 수업 진행

김태임 지부장은 순천향대학교에서 통과의례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관계례란 무엇인가? 관계례를 해야 하는 이유? 전통문화의 중요성 등 현대인이 알아야 할 우리의 전통 예절에 관한 특강을 했다.

특강 후에는 우리의 녹차를 가지고 시음회를 가지는 시간도 가졌다. 차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 유익한 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끝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는 수천

년을 이어온 것으로 우리가 같고 닮아야 한다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인천지부

지난 5월 차발 탐방

모든 회원이 하나가 되는 단합의 시간

조영아 지부장을 비롯하여 사범 및 회원 20여 명은 지난 5월에 차발 탐방을 다녀왔다. 차인에게 차발 탐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찻잎을 한 잎 한 잎 따서 광주리에 넣는 회원들의 얼굴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다. 직접 찻잎을 따는 차인들의 진지한 모습이 5월의 차발을 수놓았다. 모두가 열심히 딴 찻잎을 직접 뒤고 유념하면서 회원들은 모두가 하나가 된다.

점심으로 준비한 상추와 죽순, 된장, 고추가 땀을 흘린 회원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이렇게 날씨 좋

은 날 인천지부 회원들이 차발 탐방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2023년 행안부 수업 시작

인천지부 초등학생 대상 수업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 중, 고 대상 인성차문화예절지도 수업을 시작했다. 여름방학 동안 공부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행안부 수업은 여러 사범이 번갈아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부장 조영아

전 남 지 부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전남지부 참여

회원 30여 명 접빈다례로 관광객들로부터 호응



지부장 서난경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된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전남지부는 6월 2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가루차 접빈다례 시연과 15개의 찻자리를 펼쳐 하동 세계 차 엑스포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가루차 접빈다례는 1급 교육생들을 주축으로 김경자, 유성란, 위인숙 전문사범이 참여해 아름다운 행다의 모습을 펼쳤다.

접빈다례의 뜻에 맞춰 관광객들을 무대로 올라오게 해서 가루차를 대접해 진정한 접빈다례였다는 칭송을 들었다.

또 청차, 황차, 녹차, 홍차, 보이차, 오미자차, 연잎차 등 다양한 차를 준비한 찻자리는 하동을 찾은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했다.

이날 찻자리에 가루차 식혜를 준비한 박숙희 1급 교육생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차지했는데 “우리 차



의 다양한 활용도를 생각하다가 식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좋아해 주시니 준비한 보람이 있다.”라며 웃었다. 또한, 이정희 1급 교육생이 밤새 만들었다는 다양한 다식은 찻자리 정채 구간을 만들어 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한편 하동고에 근무하고 있는 정미경 1급 전문사범은 반차를 내고 하동을 찾아온 다우들에게 컵과 일을 만들어와 일일이 나누어 주며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글_1급 교육생 박선희



2023년도 상반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종강식 가져

포틀럭(potluck) 파티 열었어요

지난 7월 15일 전남지부는 2023년도 상반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을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가졌다.

이번 종강식은 모든 회원이 음식을 준비해와 포틀럭 파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난경 지부장은 댕쇼에 홍차를 블렌딩 해 파티의 분위기를 북돋아 주셨다.

이날 종강식에는 적은 인원이 참석해 조촐한 모습을 보였지만, 옥원주 사범교육생(2023년 충무)는 “회원 수가 적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홍차수업을 곁들여 선배님들과 수업을 하니 선후배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 좋다.”라고 말했다.

종강식 내내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이번 학기는 1급 교육생과 2급 교육생이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져 질높은 수업이 이루어졌다.

글_교육생 충무 옥원주



“재미와 소통 차(茶) 같이 드시지요”

여수 쌍봉초등학교에서 대학원생들 교생 실습 마쳐

전남지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여수 쌍봉초등학교 3~4학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행안부 지원 사업인 “재미와 소통 차(茶) 같이 드시지요”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실시했던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프로그램 후속으로 진행된 것이었는데 작년 사업의 성과가 좋아 지속적인 사업 연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실시했다.

정병도 교장은(여수 쌍봉초) “이번 다례 교육 역시 작년에 이어 인성 8덕목을 행다법에 접목시켜 교육을 하니 아이들이 훨씬 잘 받아드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전남지부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에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남지부 대학원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생 실습을 마쳤다. 박선희 1급 교육생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호 간 소통 수업을 진행하

며 학습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지부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노련함은 꼭 배우고 싶으며 폭넓은 전문지식을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부는 작년 사업의 성과가 좋아 5개 학교에서 신청해와 자체 엄선했던 2개 학교에서 9월 중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글_1급 교육생 박숙희



전 북 지 부

전북지부 정읍지회 20주년 ‘아름다운 찾자리전(展)’

14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차문화 발전에 디딤돌이 되다



지부장 이 림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2일간)까지 전북지부 정읍지회개설 20주년 기념 찾자리전 행사를 실시했다. 20년 전 정읍 신태인 정토사에 원공스님께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정읍지회현판을 걸고 차문화 교육을 꾸준히 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금자 정읍지회장이 ‘아름다운 찾자리전’을 기획하여 정읍시 연지아트홀 전시실에서 차문화를 널리 알리는 ‘아름다운 찾자리’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북지부 회원들의 환호와 격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 림 전북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처음 강의를 시작하던 날을 떠올리며 ‘원공스님께서 받을 갈고, 내가 차 씨를 심었으며 초대 김동성 지회장과 2대

류규현 지회장이 정성껏 길러내었고, 현 김금자 지회장에 이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며 이처럼 훌륭하게 꽃을 피웠으니, 이제 여러분이 열매를 거둬 이 지역 곳곳에 다시 씨앗을 나눌 때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격려를 했다.



충 북 지 부

19회 국제차문화교류전 성황리에 마치다

2024년 스리랑카와 차문화교류전 준비 중

우리 지부는 충청북도 후원으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제19회 국제차문화교류전 <대만과의 차문화 교류전>을 가졌다.

대만 신죽, 일월담, 아리산, 목책, 문산 등의 차산지를 방문하여 차 시음은 물론 동봉차창 등과의 교류전을 개최하여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생활다례, 선비다례를 행할 때는 우리 차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으로 가슴이 뚫히고 감동적이었다.

10명으로 구성된 교류팀은 4박 5일간의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 우의를 다졌고 차문화의 다양성과 폭넓은 차의 세계를 참관하며 우리 차문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 차박물관과 고궁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역사적인 사료 속에서 우리 차문화를 찾아보기도 하였다.

특히 고궁박물관의 다완 해설에 고려시대 서궁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고려와의 교역 이야기가 있어 차문화의 귀중함을 새삼 되새기기도 하였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우리 지부의 차문화교류전은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24년에는 스리랑카와 차문화교류전을 펼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부장 박숙희

논산 대건고등학교 다도 수업

학생들 다도에 관심 집중

우리 지부는 202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논산 대건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을 위한 다도 교육 시간을 가졌다.

대건고등학교 교육이념은 '교육은 사랑'이라는 모토로 가톨릭 정신에 근거하여 세워진 학교다. 전통문화에 관심을 두고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학교인 만큼 학생들의 다도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관심이 높았다.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김영희 청주상당지회장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박은숙, 박현주 사범교육생이 보조강사로 함께하였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교육과정 종강식

충북대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우리 지부는 7월 17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과정과 3급 과정인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1학기 과정 종강식을 했다.

함께한 지부장님과 사범들은 <세계티클래스>과

정 화요일 오전반을 맡은 김영희 우리 지부 상당지회장과 저녁반을 맡은 김선경 전문사범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담 속에 2학기 수업계획을 논하였다.

청주 서원초등학교 다도와 전통 놀이 교육

여름방학을 맞아 다도로 즐거움 선사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지부는 <서원초등학교 다도와 전통 놀이> 교육을 진행했다. 전통 놀이는 허윤숙, 김은희 사범이, 다도 교육은 정운경, 임미희, 정미영 전문사범과 윤기순, 박미경

사범이 맡아 수업을 펼쳤다.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 모여 즐기는 전통 놀이와 다도 시간은 어린이들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사범회 정기모임 갖다

2학기 교육에 대해 논의

매월 셋째 주 월요일 6시에 갖는 사범회는 언제나 반갑고 즐겁다. 6월 19일에는 지부장님이 마련한 대만차문화교류전 사진들을 감상하며 대만의 다



양한 차들을 시음하였다. 또 다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통 놀이 수업을 허윤숙 사범회 총무 부장이 진행했다. 놀이 수업은 더욱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어주었다.



7월 17일에는 녹차 심평을 하며 하계연수, 2학기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주현 사범(유원대 교수)의 깜짝 방문과 포도 주스 선물로 더욱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홍차티마스터 심화 과정 수료하다

4년 만에 4명의 홍차티마스터 사범 수료

우리 지부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홍차티마스터 심화 과정을 마쳤다.

1차, 2차를 마치고 열지 못했던 특별과정으로 코로나19로 4년 만에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컸다. 처음 1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4명 사범만 수료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나, 수업을 마친 안도감과 자부심 또한 크다.

김영희, 신승연, 이정애, 전인숙 사범은 차후 심의를 마친 후 우리 지부의 홍차 담당 사범으로 활약할 계획이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2·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21명)



1급-제23-432호 김O련 1급-제23-433호 이O희 1급-제23-434호 이O숙 1급-제23-435호 구O희 1급-제23-436호 허O경 1급-제23-437호 강O리



1급-제23-438호 황O지 1급-제23-439호 구O남 1급-제23-440호 김O옥 1급-제23-441호 김O영 1급-제23-442호 마O경 1급-제23-443호 박O옥



1급-제23-444호 이O희 1급-제23-445호 차O숙 1급-제23-446호 나O영 1급-제23-447호 박O희 1급-제23-448호 박O희 1급-제23-449호 오O미



1급-제23-450호 이O희 1급-제23-451호 이O희 1급-제23-452호 황O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2급-제23-1104호 김O애 2급-제23-1105호 김O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11명)



2급-제23-1106호 안O희 2급-제23-1107호 황O순 2급-제23-1108호 김O정 2급-제23-1109호 김O아 2급-제23-1110호 신O현 2급-제23-1111호 이O련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2급-제23-1112호 장O애 2급-제23-1113호 조O수 2급-제23-1114호 박O희 3급-제23-966호 김O정 3급-제23-967호 이O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13명)



3급-제23-968호 정O희 3급-제23-969호 박O수 3급-제23-970호 박O님 3급-제23-971호 신O안 3급-제23-972호 강O숙 3급-제23-973호 이O숙



3급-제23-974호 이O영 3급-제23-975호 이O서 3급-제23-976호 정O남 3급-제23-977호 정O이 3급-제23-978호 정O란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21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광주	김O련	1급-제23-432호
2	광주	이O희	1급-제23-433호
3	광주	이O숙	1급-제23-434호
4	대구경북1	구O희	1급-제23-435호
5	대구경북1	허O경	1급-제23-436호
6	서울1	강O리	1급-제23-437호
7	아산	황O지	1급-제23-438호
8	인천	구O남	1급-제23-439호
9	인천	김O옥	1급-제23-440호
10	인천	김O영	1급-제23-441호
11	인천	마O경	1급-제23-442호
12	인천	박O옥	1급-제23-443호
13	인천	이O희	1급-제23-444호
14	인천	차O숙	1급-제23-445호
15	전남	나O영	1급-제23-446호
16	전남	박O희	1급-제23-447호
17	전남	박O희	1급-제23-448호
18	전남	오O미	1급-제23-449호
19	전남	이O희	1급-제23-450호
20	전남	이O희	1급-제23-451호
21	전남	황O미	1급-제23-452호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21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광주	김O련	인성교육1급-제23-214호
2	광주	이O희	인성교육1급-제23-215호
3	광주	이O숙	인성교육1급-제23-216호
4	대구경북1	구O희	인성교육1급-제23-217호
5	대구경북1	허O경	인성교육1급-제23-218호
6	서울1	강O리	인성교육1급-제23-219호
7	아산	황O지	인성교육1급-제23-220호
8	인천	구O남	인성교육1급-제23-221호
9	인천	김O옥	인성교육1급-제23-222호
10	인천	김O영	인성교육1급-제23-223호
11	인천	마O경	인성교육1급-제23-224호
12	인천	박O옥	인성교육1급-제23-225호
13	인천	이O희	인성교육1급-제23-226호
14	인천	차O숙	인성교육1급-제23-227호
15	전남	나O영	인성교육1급-제23-228호
16	전남	박O희	인성교육1급-제23-229호
17	전남	박O희	인성교육1급-제23-230호
18	전남	오O미	인성교육1급-제23-231호
19	전남	이O희	인성교육1급-제23-232호
20	전남	이O희	인성교육1급-제23-233호
21	전남	황O미	인성교육1급-제23-234호

•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21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광주	김O련	어린이인성예절-제23-174호
2	광주	이O희	어린이인성예절-제23-175호
3	광주	이O숙	어린이인성예절-제23-176호
4	대구경북1	구O희	어린이인성예절-제23-177호
5	대구경북1	허O경	어린이인성예절-제23-178호
6	서울1	강O리	어린이인성예절-제23-179호
7	아산	황O지	어린이인성예절-제23-180호
8	인천	구O남	어린이인성예절-제23-181호
9	인천	김O옥	어린이인성예절-제23-182호
10	인천	김O영	어린이인성예절-제23-183호
11	인천	마O경	어린이인성예절-제23-184호
12	인천	박O옥	어린이인성예절-제23-185호
13	인천	이O희	어린이인성예절-제23-186호
14	인천	차O숙	어린이인성예절-제23-187호
15	전남	나O영	어린이인성예절-제23-188호
16	전남	박O희	어린이인성예절-제23-189호
17	전남	박O희	어린이인성예절-제23-190호
18	전남	오O미	어린이인성예절-제23-191호
19	전남	이O희	어린이인성예절-제23-192호
20	전남	이O희	어린이인성예절-제23-193호
21	전남	황O미	어린이인성예절-제23-194호

•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21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광주	김O련	청소년인성예절-제23-174호
2	광주	이O희	청소년인성예절-제23-175호
3	광주	이O숙	청소년인성예절-제23-176호
4	대구경북1	구O희	청소년인성예절-제23-177호
5	대구경북1	허O경	청소년인성예절-제23-178호
6	서울1	강O리	청소년인성예절-제23-179호
7	아산	황O지	청소년인성예절-제23-180호
8	인천	구O남	청소년인성예절-제23-181호
9	인천	김O옥	청소년인성예절-제23-182호
10	인천	김O영	청소년인성예절-제23-183호
11	인천	마O경	청소년인성예절-제23-184호
12	인천	박O옥	청소년인성예절-제23-185호
13	인천	이O희	청소년인성예절-제23-186호
14	인천	차O숙	청소년인성예절-제23-187호
15	전남	나O영	청소년인성예절-제23-188호
16	전남	박O희	청소년인성예절-제23-189호
17	전남	박O희	청소년인성예절-제23-190호
18	전남	오O미	청소년인성예절-제23-191호
19	전남	이O희	청소년인성예절-제23-192호
20	전남	이O희	청소년인성예절-제23-193호
21	전남	황O미	청소년인성예절-제23-194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11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경남	김O애	2급-제23-1104호
2	경남	김O순	2급-제23-1105호
3	경남	안O희	2급-제23-1106호
4	경남	황O순	2급-제23-1107호
5	서울1	김O정	2급-제23-1108호
6	서울1	김O아	2급-제23-1109호
7	서울1	신O현	2급-제23-1110호
8	서울1	이O련	2급-제23-1111호
9	서울1	장O애	2급-제23-1112호
10	서울1	조O수	2급-제23-1113호
11	전북	박O희	2급-제23-1114호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11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경남	김O애	인성교육2급-제23-95호
2	경남	김O순	인성교육2급-제23-96호
3	경남	안O희	인성교육2급-제23-97호
4	경남	황O순	인성교육2급-제23-98호
5	서울1	김O정	인성교육2급-제23-99호
6	서울1	김O아	인성교육2급-제23-100호
7	서울1	신O현	인성교육2급-제23-101호
8	서울1	이O련	인성교육2급-제23-102호
9	서울1	장O애	인성교육2급-제23-103호
10	서울1	조O수	인성교육2급-제23-104호
11	전북	박O희	인성교육2급-제23-105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13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강원	김O정	3급-제23-966호	8	전북	이O숙	3급-제23-973호
2	강원	이O순	3급-제23-967호	9	전북	이O영	3급-제23-974호
3	광주	정O희	3급-제23-968호	10	전북	이O서	3급-제23-975호
4	서울2	박O수	3급-제23-969호	11	전북	정O남	3급-제23-976호
5	서울2	박O님	3급-제23-970호	12	전북	정O이	3급-제23-977호
6	아산	신O안	3급-제23-971호	13	전북	정O란	3급-제23-978호
7	전북	강O숙	3급-제23-972호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수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 6월~ 8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부회장 · 차영민 (500,000원) 서울제1지부 · 홍길선 (100,000원)
대구경북제1지부 · 박경숙 (300,000원) 순천지부 · 김영애 (300,000원)
보성지구 · 허경남 (110,000원) 전북지부 · 이 름 (300,000원)
서울제1지부 · 이기분 (100,000원) 기타 · 정건영 (500,000원)

특별회비(임원)

이사 · 하 식 (1,000,000원)
지부장 · 김미숙 (500,000원)
지부장 · 정경희 (5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경남지부 · 김선애, 김임순, 안선희, 황동순
광주지부 · 김인숙, 김지영, 김보련, 이영희, 이인숙
서울제1지부 · 김세정, 김정아, 신소현, 이봉련, 장미애, 조운수
서울제2지부 · 최근순
아산지부 · 황유지
전남지부 · 나혜영, 박선희, 박숙희, 오수미, 이경희, 이정희, 황은미
전북지부 · 박현희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3년 6월-2023년 8월 우수료 납부자 명단

6월 통장 입금

강원 · 조기주(해명스님), 공지숙, 신윤조 / 서울제2 · 김한나, 최근순 / 인천 · 위타점, 김
기옥, 이윤희, 김순옥, 김은숙, 차애숙, 최성미, 박명모, 최선규, 김광호, 이영진, 조비주,
박경숙, 김돌임, 박영옥, 구경남, 신은주, 주순복(김희영), 남미선, 마숙경, 강희옥

7월 통장 입금

전남 · 옥원주, 오옥순

8월 통장 입금

경남 · 김선애, 황동순, 김임순, 안선희, 하 식 / 광주 · 김보련, 이영희, 이인숙, 김인숙,
김지영, 최귀숙 / 서울제1 · 조운수, 신소현, 장미애, 김세정, 이봉련, 김정아 / 아산 · 황
유지 / 전남 · 박숙희, 오수미, 황은미, 박선희, 나혜영, 이정희, 이경희 / 전북 · 박현희

※ 바로잡습니다.

2023년 여름호 차문화 소식지에 차음식 경연대회 수상작(26-27페이지)
수상작과 지부 이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제34회 차음식경연대회 수상작품



대상_경남지부_박은화



최우수상_대구경북1지부_이남정



최우수상_대구경북1지부_안경숙



최우수상_경남지부_안선희



최우수상_서울제1지부_이석예



최우수상_대구경북1지부_김영희



우수상_순천지부_송예진



우수상_순천지부_김보아



우수상_서울제1지부_최정희



우수상_부산지부_최영희



우수상_순천지부_조혜숙



우수상_충북지부_김선경



우수상_서울제1지부_최진숙



특별상_전남지부_나혜영



특별상_전북지부_박현희



특별상_인천지부_김은숙



특별상_순천지부_이미란



특별상_인천지부_김순옥



특별상_전남지부_박숙희



가작_아산지부_황유지



가작_경남지부_이서영



가작_충북지부_허윤숙



가작_서울제2지부_류소영



가작_충북지부_박은숙



장려상_인천지부_이윤희



장려상_전남지부_옥원주



장려상_경남지부_이서영



장려상_서울제2지부_최유리



장려상_순천지부_송예진



입선_강원지부_김복순



입선_서울제1지부_이기분



입선_강원지부_박정자



입선_인천지부_차애숙



입선_순천지부_주혜란



입선_전남지부_오옥순



입선_강원지부_공지숙



입선_서울제2지부_장효순



입선_충북지부_박현주



입선_충북지부_김신영



입선_서울제1지부_최정희



입선_충북지부_신승연



입선_강원지부_조기주



입선_서울제2지부_허유진



입선_충북지부_정미영



입선_전남지부_이정희



입선_부산지부_윤명희



입선_강원지부_윤석현

2023 제22기 한국차문화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내용

- 모집 분야 : 한국차문화대학원 전문사범 교육
- 모집 인원 : 00명
- 개강 일시 및 장소 : 2023. 9. 16.(토) 오전11시(예정) (장소: 협회)
- 교육 일자 : 매월 1,3주 (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 방법 : 오프라인, 온라인(동영상) 병행

교육 이수 후 취득 사항

- ① 등록 민간자격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 ② 등록 민간자격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 ③ 등록 민간자격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 ④ 등록 민간자격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 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전수교육생증 수여
- ※ 단, 필기시험 및 실기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

전형일정

-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협회 홈페이지(www.koreatea.or.kr) ▶ 교육안내 ▶ 교육신청접수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지 '차문화'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고품격 '차문화' 지(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창간 이후 무광고로 발행했던 '차문화'지에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계간 차문화

- 판형 : 4×6 배판(188mm×257mm)
- 색도 : 올컬러
- 면수 : 100면 내외
- 발행부수 : 5,000부
- 배포 : 차문화 전회원을 비롯하여 일본 및 전국 차관련 유관 단체

광고 신청 접수

-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메일 또는 전화 신청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전화 : 02-719-7816)
- 광고 할 내용과 사진/ 광고필름/ PDF 파일/ JPGA 파일 접수함
- 접수된 광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함

선정 된 광고 게재 혜택

- 회원 및 전국의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광고 효과 기대됨.
-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 효과 기대 등.

광고 게재 금액 (연간 계약시 1회 무료)

- | | |
|----------------------------|-----------------------------|
| ▪ 표지4 (겉 표지) 1회 1,000,000원 | ▪ 내지 1장 (1 페이지) 1회 300,000원 |
| ▪ 표지3 (안 표지) 1회 500,000원 | ▪ 내지 ½장 (반 페이지) 1회 200,000원 |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지 '차문화'誌에 '차문화' 회지를 찾고 있습니다.

협회 계간지 '차문화'를 창간호(1999년)부터~ 2022년까지 책을 모아 보관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년 월호 책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 배송지 주소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999년 1, 2월호 / 11, 12월호 | ▪ 2002년 9, 10월호 / 11, 12월호 |
| ▪ 2000년 1, 2월호 / 7, 8월호 / 9, 10월호 | ▪ 2004년 5, 6월호 / 7, 8월호 |
| ▪ 2001년 3, 4월호 / 5, 6월호 / 7, 8월호 / 9, 10월호 | ▪ 2007년 7, 8월호 |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다매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들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 국 제 다

제품상담: 062)222-2902